

<도전'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매국노의 가슴앓이(II)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언뜻 듣기에 생소하기도 하고,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재기한 것 같기도 한 이 문구는 필자가 보기에 현재의 한국 석유화학 산업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 5위권이라는 주장에 걸맞지 않게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의 와중에서 해매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도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맞물린 가운데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상을 다른 어떠한 문구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휘청거린다」 또는 「흔들린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불황카르텔」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계의 「제목소리 내기」를 살펴보면 확실한 답이 나온다. 먼저, 폴리올레핀의 공급과잉을 막고 가격을 인상, 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간의 주장이 너무나도 극을 달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삼성을 비롯, 현대·럭키 등은 NCC를 비롯, 폴리올레핀 공장을 100% 가동-사실 100~120%까지 가동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공급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채산성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간섭에 의한 가격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반해 대림·유공 등은 폴리올레핀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NCC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NCC 가동률을 85% 내외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NCC가동률을 조정,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공급을 줄이고 이에따라 폴리올레핀-LDPE·HDPE·PP의 생산량을 줄여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대림·유공의 주장과 속 뜻이 어떠한 간에 가동률을 줄이고 공급량을 조정,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은 불황카르텔이 아니더라도 자구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삼성·현대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불황카르텔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국내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시장점유율 및 생산능력을 고려 각사별 공급량을 결정해야 하나, 전체적인 가동률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100% 가동에 의한 공급량 조절이 쉽지않고 100% 가동을 전제하다 보니 내수시장 뭇을 조금이라도 더 할당 받을수록 유리, 서로간에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동률 10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고 채산성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더이상 다행스럽지 않겠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은 「꿈」 이상이 아닌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점 석유화학 관계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100% 가동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정부에서 석유화학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또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주무부서인 상공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어여뻐」 생각,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절대적인 반대로 불황카르텔이 무산되더라도-거의 확실하게 불황카르텔이 물 건너간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지도」라는 편법을 동원해 내수가격을 인상해줄 수 있고, 이 경우 출혈을 전혀 하지 않고도 일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수입이 개방되고 관세율이 10%도 안되는 현실에서 그들의 가격인상이 수입을 유발, 그들의 내수 기반마저도 흔들 수 있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상공부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지도」를 통한 내수 공급량 조절과 가격인상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수는 한번으로 끝내야지, 만회한답시고 또다른 실수를 범한다면 누구도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화학저널 1993/12/6>